

시나리오  
<악몽 병원>

## S#1 흰 공간 - 몽환적인 분위기의 장소 (실내/낮)

사방이 하얗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윤슬(여자/19)은 작은 종이 여러 장과 병원 홍보 전단지를 들고 초조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흰 문으로 들어간다.

## S#2 악몽 병원 안 (실내/밤)

짤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짤랑. 하얀 연기로 가득 찬 병원이 보인다. 환자복을 입은 윤슬이 연기를 걷는 듯한 손사래를 치며 말한다.

윤슬  
저기요?  
저기요???

안개가 점점 걷히고 기묘한 병원 내부가 보인다.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의사, 인턴, 간호사  
어서 오세요.

윤슬은 뒤를 돈다. 아무도 없는걸 확인한 윤슬은 다시 앞을 본다. [윤슬의 바로 앞에 있는 어리바리하게 생긴 인턴과 창백한 간호사.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나오는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온 의사. 윤슬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 부른다]

의사, 인턴, 간호사  
이승과 저승 그사이 경계 어딘가 위치한 이곳.  
꿈에 갇힌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병원  
악몽 병원입니다.

등골에 소름이 (짜)  
이마에 땀이 (짜)  
오싹오싹한 (병원)  
(이곳은 바로) 악몽 병원.

꿈에서 깨지 못할까 걱정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원조 악몽 병원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꿈이 없어요  
물론 우리 선조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비명을 질러봐요  
눈물을 보여봐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꿈에서 깨면 다 기억 안 나.

우리가 돌려보내줄게요.  
무사히 살던 곳으로  
우리를 믿어봐요.

당신의 무서움이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의 악몽이 무엇인가요?  
이곳은 악몽 병원.

윤슬에게 손을 내밀면서 에스코트하려는 간호사와 인턴. 윤슬은 조심스럽게 손을 거부하면서 급하게 말한다.

**윤슬**

제가 너무 급해서 악몽 좀 보여주세요.

**인턴**

(윤슬의 반응에 당황하며) 네??

**윤슬**

제가 오늘 수능이라서요.

빨리 일어나야 해요.

제발 빨리 (애절하게) 현실로 보내주세요.

인턴과 간호사는 의사를 보고 의사는 간호사를 보며 끄덕인다.

**간호사**

따라오시죠.

### S#3 화장실 (실내/밤)

눈을 뜨니 어두컴컴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윤슬.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 판단을 한다. 그때 화장실 벽 아래 틈에서 양쪽으로 흰 피부에 검정 긴 손톱의 손이 나온다. 오른손에는 빨간 휴지, 왼쪽 손에는 파란 휴지가 나온다. 그리고 말소리가 들린다.

**인턴, 간호사**

빨간 휴지와 파란 휴지 줄까?

어이가 없어 당황하는 윤슬의 얼굴.

#### S#4 세면대 (실내/밤)

다시 눈을 뜨니 어두운 화장실 세면대에 있는 윤슬. 거울을 보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 본인 외에 아무도 없다. 다시 고개를 숙이는 윤슬. 이상한 기분에 다시 거울을 쳐다본다. 긴 머리에 소복을 입은 귀신이 윤슬을 쳐다보고 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윤슬.

윤슬

무슨 조선 시대에요?

#### S#5 어두운 공간 (실내/밤)

어두운 공간에서 간호사 복장을 한 간호사가 자신의 얼굴 밑에 촛불을 댄다. 긴장하는 간호사의 얼굴. 윤슬은 말없이 간호사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애원한다.

윤슬

제발

이건 저희 할머니가 봐도 안 놀라겠어요.

#### S#6 악몽 병원 안 (실내/밤)

악몽 병원 내부로 돌아온 윤슬과 병원 사람들. 절망적인 상태로 병원 사람들이 의자에 걸터앉는다. 그런 병원 사람들을 보고 짜증 난 얼굴로 화를 내다 조금 울컥한 윤슬.

윤슬

여기 병원 맞아요?

(살짝 울컥하며) 제 인생이 걸린 날이라고요.

의사는 덤덤하게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윤슬에게 준다. 윤슬은 손수건에 코를 풀며 웅얼거리게 말한다.

윤슬

0번

#### S#7 흰 공간 (실내/밤)

밝은 공간에서 다른 병원 번호표를 여러 장 들고 있는 윤슬. 0번, 10220번, 40322번, 51507번 대기표를 보며 머리를 쥐어 찐다.

윤슬

4321번, 10220번, 51507번...

제시간에 못 일어나겠지.

S#8 악몽 병원 안 (실내/밤)

윤슬의 웅얼거리는 말에 다시 묻는 인턴.

인턴

네?

윤슬

대기가 없어서 왔는데

왜 왜...

다른 병원 가기에는 이미 늦었다고요.

인턴

환자분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요.

윤슬

진정이고 나발이고

저 좀 돌려보내주세요.

의사

저희도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일에

그 누구보다 절실합니다.

인턴

맞아요.

오늘 윤슬 님이 안 오셨으면 폐업이었어요.

절실한 걸로 따지면 저희가 더 하다고요.

간호사

네. 정말 진심입니다.

윤슬

폐업...?

올해가 삼재라더니...

꿈에서도 겪고 있네. 망할.

의사

일단, 윤슬 님도 저희 병원이 아니면 방법이 없고

저희도 환자가 간절한 상황이니

자리를 옮겨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까요?

윤슬

(해탈은 표정으로) 해결책...

네, 좋아요. 얘기해 봐요.

## S#9 병원 내부 (실내/밤)

책상에 둘러앉아 있는 의사, 인턴, 간호사, 윤슬.

**윤슬**

조선 시대 사람이 봐도 안 놀랄  
그런 구린 악몽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의사**

병원 1대 의사셨던 저희 할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윤슬**

아, 그렇구나. (어색한 미소)  
그럼 왜 시대에 맞게 수정이 안 된 거죠?

**인턴**

수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악몽은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간호사**

저희도 시도를 해봤지만,  
모두에게 통하는 악몽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의사**

환자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다 와서  
모두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죠.

**윤슬**

그럼 저한테만 무서운 악몽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인턴**

저희가 윤슬 님의 무서움을 어떻게 알고요?

**윤슬**

차트, 차트를 만들어서요!  
환자들의 무서움을 조사하는 환자 차트.

초록 칠판을 가져와 분필로 환자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적기 시작하는 윤슬. 온갖 글을 다 적던 윤슬은 밖으로 나가서 환자 한 명을 끌고 들어온다. 그리고 환자에게 자신이 적은 차트 검사지를 토대로 질문을 한다.

**윤슬**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환자**

사람이 더 무서워요.

**윤슬**

그럼 여자? 아니면 남자?

**환자**

남자..?

**윤슬**

장발? 단발?

실내? 야외?

환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질문하고 나온 답변을 토대로 차트를 만들어서 병원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윤슬**

이 환자분의 무서움을 조사한 결과  
피에로 분장한 남자 광대, 실내, 분홍색, 풍선이에요.

아, 정확히는 풍선 터지는 걸 무서워한대요.

**인턴**

이 정도 정보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바로 진행해요

#### **S#10 분홍색 인형의 방 (실내/밤)**

눈을 뜬 남자. 인형이 가득한 스산한 방에 있다. 책상에는 오르골이 있고 오르골에서 소리가 흘러나온다. 의자에는 피에로 인형이 있다. 남자는 책상에 있는 오르골을 집어 든다. 그때 멈춰지는 오르골 소리. 누군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고개를 드는 남자. 눈앞에 피에로가 칼을 들고 서 있다.

**남자**

까아아악

#### **S#11 병원 내부 (실내/밤)**

남자의 비명 후 병원 내부에는 남자가 없어졌고 환자를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병원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하게 있다. 윤슬과 하이파이브 하며 함께 기쁨을 만끽한다.

**인턴**

선생님. 드디어, 드디어 환자를 돌려보냈어요.

**간호사**

오랜만에 벅차네요.

**의사**

윤슬 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인턴&간호사**

감사합니다.

의사와 인턴, 간호사는 윤슬에게 인사와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 윤슬은 귀가 빨개진 상태로 괜히 다른 곳을 보며 이야기한다.

**윤슬**

됐어요

**인턴**

(웃으며) 환자 한 명도 못 보고 오늘 폐업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윤슬 님 덕분이예요.

인턴의 말을 듣던 윤슬은 한 단어를 되뇌인다.

**윤슬 V.O**

오늘..오늘?

**윤슬**

(놀라는 표정과 다급하게) 이제 제 차례요.  
저 이제 꿈에서 깰 수 있을까요?

윤슬의 말에 서로 눈빛 교환을 하고 끄덕이며 말하는 병원 관계자들.

**의사 & 인턴 & 간호사**

믿어주세요.

#### **S#12 병원 회의실 (실내/밤) 고속 촬영\_교차편집**

책상에 앉아서 차트를 보며 매우 진중한 표정으로 땀까지 흘리며 윤슬의 무서운 꿈을 기획하는 의사. 인턴, 간호사의 모습. 앉아서 말하던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록 칠판으로 가 윤슬의 모습을 그리며 열띠게 말을 이어 나간다. 이에 인턴도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로 책상을 치며 의사의 말을 반박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이에 간호사가 인턴을 자리에 앉힌다.

#### **S#13 병원 대기실 (실내/밤) 고속 촬영\_교차편집**

초조하게 기다리는 윤슬.

의사, 인턴, 간호사가 대기실에 들어오고 바닥에 연기가 가득 찬다. 그리고 조명이 꺼진다.

#### **S#14 윤슬의 방 (실내/낮)**

눈을 뜬 윤슬. 새소리가 들리며 날이 밝다.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일어나는 윤슬.



윤슬

나 이제 돌아온 건가?

안도하고 시계를 본다. 오후, 12시를 가리킨다.

S#15 윤슬의 방 (실내/아침)

윤슬

까아아아악

기겁하며 벌떡, 일어나는 윤슬.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다. (fade-out)

-끝-